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최 형 성*

Choe, Hyung Sung

정 옥 분**

Chung, Ock Boo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is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took place in Seoul with 473 mothers of 5th and 6th grade children. Means, %, χ^2 , Cramer's V, Cronbach's α , Split-half Reliability,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r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ive parenting self-efficacy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37 items developed for this study. Subscales were General Parenting Self-Efficacy, Health, Communication, Education, and Control. Criterion Validity of the 37 items was confirmed by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hin's parenting self-efficacy($r=.71$).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was high (Cronbach's $\alpha=.92$), including internal reliability of subscales. Factor validity was satisfactory at .65 - .86. These results confirm this scale a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of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자아효능감(self-efficacy), 어머니(mather)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 론

부모의 양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Bornstein, Haynes, Azuma, Galperin, Maital, Ogino, Painter, Pascual, Pocheux, Rahn, Toda, Venuti, Vyt, & Wright, 1998).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부모의 자아형성과,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7;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Mondell & Tyler, 1981; Teti & Gelfand, 1991).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 중 하나로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이라는 요인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Dumka, et al., 1996; Teti & Gelfand, 1991). 그리고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역할에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은 Bandura의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Bandura, 1997).

학자들이 정의한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적절한 발달과 관련된 가치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Dumka, Storerzinger, Jackson과 Roosa(1996)는 양육효능감이란 부모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육역할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Scheel과 Rieckman(1998)은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정의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양육효능감이라 함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나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의 진전과 그 활용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초기의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제작한 척도는 양육효능감과 양육만족감을 함께 측정하는 도구였고, 7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은 이 도구의 하위 영역에 불과하였다(Coleman & Karraker, 1997). Ballenski와 Cook(1982)에 의해 개발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척도는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세에서 14세까지 각 발달 단계의 양육과업에 대한 효능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Abidin(1986)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에는 그 하위영역 중 하나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아동행동에 대한 통제, 일상의 요구에 대한 대처, 아동의 까다로움에 대한 조절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abatelli와 Waldron(1995)도 이 영역을 이용하여 부모의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Wells-Parker, Miller와 Topping(1990)은 대부분 21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척도의 하위영역 중 하나가 양육효능감 영역이며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들의 척도는 Gondoli와 Silverberg(1997)의 연구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Teti와 Gelfand(1991)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유아 양육과 관련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척도는 Levi-Shiff, Dimitrovsky, Shulman와 Har-Even(1998)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Allen(1993)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3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랑,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인 효능감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척도라 할 수 있다. 이 척도는 Dorsey와 동료들(1999), Brody와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Elder, Eccles, Ardel과 Lord(1995)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부모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Dumka와 그 동료들(1996)은 3세에서 12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양육의 지속성, 양육에 대한 노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사용되어 왔던 양육효능감이 점차 하나의 독립된 척도로 사용되며,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이 구성되는 등 양육효능감의 측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강희경, 1994; 문혁준, 1999; 서혜영, 1999; 신숙재, 1997), Sherer와 Maddux(1982)의 측정도구중 일반적인 효능감을 묻는 문항에 부모역할에 대한 문항을 첨가하여 사용(우희정, 1993)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척도는 아직 양육효능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져 외국에서는 이미 잘 사용하지 않는 척도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에 다소 아쉬움을 갖게 한다. 그리고 도구 전체가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영역중 1개 영역으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측정도구를 국내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육효능감 영역이 이론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절차없이 9개 문항, 10개 문항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연구결과의 해석에 다소 신중함을 요하게 한다. 또한 이들의 척도는 하위영역 중 하나가 양육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더구나 양육효능감이란 문화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며 문화에 따라 양육효능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다(Bornstein, et al., 1997)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에 맞는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예전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과 활동의 양이 많아지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이려는 특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다(Conger, 1984). 이러한 특성은 점차 부모와 자녀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는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모는 아동의 중요한 사회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새로운 양육에 대한 가치와 태도, 행동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 하겠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대상이 주로 어머니였음(Cutrona & Troutman, 1986; Dorsey, et al., 1999; Levi-Shiff, et al., 1998; Teti & Gelfand, 1991)과, 아직까지도 아동을 양육하는 일차책임자가 어머니이며,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양이 여전히 아버지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는 일은 이에 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제대로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하고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는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해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서울 시내 3개구의 3개 초등학교에서 무선 표집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4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작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아동이 다닌다고 인정되는 3개구의 3개 초등학교에서 무선 표집한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1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와 그 자녀의 일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남아가 45.7%, 여아가 54.3%이었으며, 5학년 아동이 53.0%, 6학년 아동이 47.0%이었다. 형제수는 2명인 경우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첫째인 아동이 50.9%이었으며, 둘째인 아동이 40.5%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 사이가 57.5%, 41-45세 사이가 27.5%였다. 학력은 고졸이 57.8%, 직업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5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수입은 200-249만원 사이인 경우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150-199만원인 경우가 14.9%, 250-299만원이 경우와 300-349만원인 경우가 각각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양육효능감 척도 구성을 위한 문항 선정의 제작과정에는 Allen(1993), Dorsey와 그 동료들(1999), Dumka와 그 동료들(1996), Elder와 그 동료들(1995), Johnston & Mash(1989), Teti와 Gelfand(1991), Wells-Parker와 동료들(1990), 신

숙재(1997), 강희경(1994), 우희정(1993)의 척도 등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하였다. 척도제작을 위해 선행연구의 질문지에서 추출한 문항들을 모아, 변안·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양육효능감의 척도는 처음에 155문항으로 시작되었으며, 아동학 전공자 5인에게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수정·보완하여 1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다시 아동학 전공자 10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고 수정·보완된 후 94문항으로 구성되어 해당연령 아동의 어머니 17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질문지와 함께 기존의 척도들이 포함하지 못한 측면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양육효능감 요인 파악 및 문항의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한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문항과 해당 아동양육에 대한 부적절성이나 문항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문항들을 침삭·수정하여, 총 83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조사에 의한 연구결과는 아동학 전공자 11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측정도구의 외적 기준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척도는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차원과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 차원으로 양육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신숙재(1997)는 이들의 척도를 번안하여 9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신숙재(1997)의 척도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유사한 연령대의 초등학교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공인 타당도를 위한 외적기준 관련 척도로 선택하였다.

3. 연구절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예비조사는 2000년 8월 28일에서 31일까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17인을 대상으로 질문지 및 개별면접 방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2000년 9월 4일에서 9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회수된 476부의 질문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한 473부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제작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어머니 190명을 대상으로 2001년 4월 23일에서 28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회수된 176부의 질문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12부를 제외한 164부가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과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 제거시의 내적합치도, 문항-척도전체의 상관, χ^2 검증 및 Cramer's V를 통한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공통요인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을 실시하였다. 공인 타당도와 요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상관계수인 Person's γ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문항양호도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구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그리고 문항 제거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표1과 표2 참조). 총 83개의 문항중 문항분석 과정에서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 9개(평균 4.1점 이상, 2점 이하), 상대도수분포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문항 5개(5점 척도중 번호에 60% 이상 치중된 경우),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이 유의 수준 1%에 못 미치는 문

〈표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검사의 각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상대도수분포 (N=473)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상 대 도 수 분 포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상 대 도 수 분 포				
			1	2	3	4	5				1	2	3	4	5
1	3.93	.80	1.3	4.7	14.4	58.4	21.4	43	3.50	.73	0.4	8.1	37.3	49.0	5.1
2	4.13	.83	1.3	3.0	13.6	46.0	36.4	44	3.49	.71	0.0	8.8	36.7	50.4	4.1
3	3.85	.82	1.7	4.9	17.5	58.0	17.9	45	3.41	.83	1.1	12.5	37.0	42.8	6.7
4	3.84	.79	0.6	4.9	21.6	54.9	17.9	46	3.60	.89	1.3	11.7	24.2	50.5	12.3
5	3.79	.79	0.2	5.8	25.2	51.8	17.1	47	3.64	.77	0.6	6.4	30.5	52.5	10.0
6	4.34	.69	0.4	1.5	5.8	47.8	44.4	48	4.04	.80	0.9	3.8	14.0	53.0	28.3
7	3.97	.69	0.2	1.9	18.5	59.1	20.3	49	3.81	.82	0.4	6.8	21.7	52.9	18.3
8	3.68	.78	1.1	3.7	33.9	48.5	12.8	50	3.66	.81	0.6	5.8	35.0	44.0	14.6
9	3.96	.71	0.0	1.7	22.4	54.0	21.9	51	3.63	.89	1.7	10.2	24.0	51.0	13.2
10	3.79	.81	0.4	6.0	25.3	50.2	18.0	52	3.11	1.01	4.2	26.9	29.2	32.4	7.2
11	4.08	.73	0.2	2.6	13.9	55.0	28.4	53	3.75	.81	0.4	5.7	28.7	48.6	16.6
12	3.70	.86	0.4	8.6	27.8	46.3	16.8	54	4.39	.77	1.1	1.9	5.9	38.3	52.8
13	3.56	1.05	3.6	12.9	25.8	38.6	19.1	55	4.00	.76	0.2	2.8	19.5	51.5	26.0
14	4.26	.77	0.2	1.9	13.4	40.1	44.4	56	3.78	.78	0.4	4.1	28.9	49.6	17.0
15	3.01	.86	2.8	24.3	45.2	23.7	4.1	57	3.98	.73	0.2	3.0	17.7	56.2	22.9
16	3.15	.90	2.2	22.0	39.5	30.2	6.0	58	3.95	.74	0.4	3.0	18.5	56.5	21.7
17	3.82	.75	0.0	5.3	22.9	55.7	16.1	59	3.64	.86	0.6	7.9	33.4	42.1	16.0
18	3.72	.83	0.6	7.4	26.4	50.3	15.2	60	3.48	.84	1.3	9.6	38.2	41.2	9.8
19	3.44	.79	0.4	11.5	38.0	43.5	6.6	61	3.76	.89	1.3	7.7	24.1	47.1	19.8
20	3.72	1.09	2.4	14.6	19.9	34.5	28.7	62	3.79	.77	0.2	4.9	26.7	51.5	16.7
21	3.81	.78	0.9	4.5	22.6	56.3	15.7	63	3.62	.82	1.1	7.7	30.7	48.8	11.7
22	2.37	1.10	23.6	37.8	19.3	16.1	3.2	64	4.04	.75	0.4	3.8	12.3	57.6	25.8
23	3.10	.88	3.2	20.1	43.9	28.1	4.7	65	3.79	.70	0.4	3.0	25.6	58.6	12.4
24	3.87	.76	0.4	3.8	22.1	55.5	18.1	66	3.63	.82	0.6	7.2	33.6	44.9	13.6
25	3.81	.62	0.2	2.1	22.8	65.9	9.0	67	4.00	.71	0.2	2.8	16.2	58.5	22.3
26	3.51	.90	1.1	12.5	32.8	40.9	12.7	68	4.22	.64	0.0	1.5	7.2	58.4	32.9
27	3.24	.84	0.6	17.9	44.2	30.3	6.8	69	4.19	.65	0.0	1.7	8.3	59.0	31.0
28	3.41	.79	0.4	11.5	40.7	40.7	6.7	70	3.36	.82	0.6	13.8	40.8	38.2	6.6
29	3.15	.81	0.4	20.7	45.8	28.6	4.5	71	3.89	.73	0.2	3.0	22.2	55.9	18.6
30	3.93	.76	0.0	4.2	19.5	54.4	21.9	72	3.94	.68	0.4	1.7	18.6	61.9	17.3
31	3.71	.79	0.4	5.9	29.4	50.4	13.8	73	3.46	.84	0.4	14.1	32.5	44.9	8.1
32	3.73	.73	0.2	5.1	27.4	55.7	11.5	74	3.91	.71	0.4	3.0	18.8	60.7	17.1
33	3.59	.75	0.0	7.8	32.8	50.8	8.5	75	3.81	.85	1.5	7.2	17.4	56.6	17.4
34	3.96	.68	0.2	2.1	17.5	61.3	18.8	76	3.87	.75	0.4	4.7	19.3	58.3	17.4
35	3.39	.79	0.2	13.0	39.7	41.4	5.7	77	3.94	.68	0.0	2.5	19.2	59.8	18.4
36	3.48	.77	0.4	9.1	39.5	43.6	7.3	78	3.97	.69	0.2	1.9	18.0	59.7	20.2
37	4.33	.71	0.4	0.9	9.0	44.1	45.6	79	2.16	.80	16.6	58.6	17.7	6.0	1.1
38	4.00	.72	0.0	3.2	16.3	57.2	23.3	80	3.52	.82	0.2	10.2	36.9	42.4	10.2
39	3.90	.60	0.0	1.5	18.8	67.6	12.2	81	4.18	.76	0.6	3.2	8.5	52.1	35.5
40	4.15	.66	0.0	1.9	9.8	59.4	28.8	82	3.76	1.01	2.1	10.2	22.7	38.9	26.1
41	3.98	.71	0.2	1.1	22.0	53.5	23.2	83	3.05	.83	2.1	22.5	46.5	25.7	3.2
42	3.68	.74	0.4	6.2	27.4	56.2	9.8								

〈표 2〉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문항-척도전체 상관, 문항변별도, 내적합치도 N = (473)

문항 번호	문항-전체 상관	제거후 내적 합치도(.9589)	χ^2	변별도	문항 번호	문항-전체 상관	제거후 내적 합치도(.9589)	χ^2	변별도
1	.35***	.9587	197.4**	.88	43	.64***	.9579	254.0**	1.00
2	.40***	.9586	254.0**	1.00	44	.65***	.9579	252.0**	1.00
3	.22***	.9591	211.8**	.91	45	.47***	.9584	252.0**	1.00
4	.45***	.9585	252.0**	1.00	46	.45***	.9585	254.0**	1.00
5	.47***	.9583	254.0**	1.00	47	.45***	.9584	254.0**	1.00
6	.34***	.9588	250.0**	1.00	48	.46***	.9584	254.0**	1.00
7	.39***	.9586	190.1**	.87	49	.50***	.9583	254.0**	1.00
8	.44***	.9585	248.0**	1.00	50	.50***	.9583	252.0**	1.00
9	.49***	.9583	252.0**	1.00	51	.50***	.9583	254.0**	1.00
10	.47***	.9584	252.0**	1.00	52	.39***	.9586	254.0**	1.00
11	.45***	.9584	254.0**	1.00	53	.34***	.9587	254.0**	1.00
12	.52***	.9582	250.0**	1.00	54	.45***	.9585	254.0**	1.00
13	.40***	.9586	252.0**	1.00	55	.52***	.9582	238.3**	.97
14	.41***	.9586	250.0**	1.00	56	.56***	.9581	250.0**	1.00
15	.55***	.9582	254.0**	1.00	57	.55***	.9582	206.7**	.90
16	.60***	.9580	250.0**	1.00	58	.56***	.9581	205.0**	.89
17	.56***	.9581	254.0**	1.00	59	.46***	.9584	254.0**	1.00
18	.52***	.9583	256.0**	1.00	60	.49***	.9583	254.0**	1.00
19	.62***	.9580	254.0**	1.00	61	.43***	.9585	254.0**	1.00
20	.07	.9596	252.0**	1.00	62	.61***	.9580	254.0**	1.00
21	.49***	.9584	250.0**	1.00	63	.44***	.9585	254.0**	1.00
22	.01	.9597	254.0**	1.00	64	.60***	.9580	235.8**	.96
23	.49***	.9583	252.0**	1.00	65	.54***	.9582	254.0**	1.00
24	.37***	.9588	242.8**	.97	66	.58***	.9581	254.0**	1.00
25	.46***	.9584	221.4**	.93	67	.59***	.9581	198.8**	.88
26	.45***	.9584	254.0**	1.00	68	.58***	.9581	247.0**	1.00
27	.56***	.9581	252.0**	1.00	69	.54***	.9582	246.0**	1.00
28	.49***	.9583	250.0**	1.00	70	.56***	.9582	254.0**	1.00
29	.54***	.9582	254.0**	1.00	71	.44***	.9585	230.2**	.95
30	.47***	.9584	217.0**	.92	72	.50***	.9583	183.3**	.84
31	.52***	.9583	254.0**	1.00	73	.47***	.9584	252.0**	1.00
32	.55***	.9581	254.0**	1.00	74	.54***	.9582	192.4**	.87
33	.67***	.9578	254.0**	1.00	75	.26***	.9590	239.3**	.97
34	.55***	.9582	183.3**	.84	76	.62***	.9580	216.1**	.92
35	.58***	.9581	254.0**	1.00	77	.58***	.9581	193.8**	.87
36	.55***	.9582	250.0**	1.00	78	.46***	.9584	190.0**	.86
37	.53***	.9582	246.0**	1.00	79	-.30***	.9605	218.0**	.92
38	.54***	.9582	206.2**	.90	80	.44***	.9584	254.0**	1.00
39	.51***	.9582	166.1**	.80	81	.40***	.9586	254.0**	1.00
40	.54***	.9582	252.0**	1.00	82	.28***	.9590	254.0**	1.00
41	.53***	.9582	211.9**	.92	83	.53***	.9583	254.0**	1.00
42	.51***	.9583	254.0**	1.00					

** p<.001, *** p<.0001

항,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가 높아지는 문항 ($\alpha=.9589$) 6개를 제거하였다. 한편 응답 분포를 토대로 상·하위 27%의 두 집단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전체 83개의 문항은 $p<.001$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Cramer's V계수는 모든 문항이 .80을 넘었다. Cramer's V계수를 통한 변별도의 일반적인 수용수준이 .25 이상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63문항 구성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2. 타당도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앞서 문항 양호도 분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63개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요인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scree검사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지정하였으며, 각 요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본 연구 조사자료의 요인분석에 좀 더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직각 회전방법(varimax)으로 회전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전체변량의 75.2%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가운데 해당요인과의 요인 부하량이 .40이하를 나타내거나, 타요인과 .3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25문항을 제외한 38문항을 선정하였다.

38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아동학 박사 및 박사과정 11명에게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아동학 전공자들에 의해 각 요인의 이름이 결정되었으며, 측정도구의 문항은 좀 더 세련되게 수정되었고,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1개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7개의 문

항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표 3, 부록 1참조).

〈표 3〉 양육효능감 척도의 요인행렬표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h ²
16	.73	.10	.17	.22	.09	.62
27	.70	.21	.15	-.02	.09	.57
29	.56	.19	.15	.20	.12	.43
23	.55	.17	.09	.30	.13	.45
83	.52	.18	.05	.26	.19	.41
33	.51	.21	.21	.28	.28	.51
21	.45	.26	.28	-.03	.07	.36
17	.45	.19	.34	.08	.12	.37
26	.44	.16	.21	.06	.14	.28
10	.44	.11	.29	.08	.11	.31
36	.40	.19	.19	.31	.24	.39
57	.28	.62	.09	.00	.33	.58
55	.29	.58	-.02	.01	.26	.48
59	.16	.56	.19	.20	.01	.41
53	.06	.50	.25	.02	.03	.32
58	.21	.45	.21	.18	.26	.39
61	.10	.43	.13	.30	-.05	.31
52	.11	.40	.22	.21	-.02	.27
11	.14	.05	.58	.06	.10	.37
7	.04	.04	.53	.16	.13	.32
41	.11	.28	.52	.14	.12	.39
24	.10	.20	.49	.00	.03	.29
18	.24	.14	.47	.03	.14	.32
9	.29	.07	.43	.05	.30	.37
64	.11	.30	.42	.29	.32	.46
38	.24	.19	.42	.14	.16	.31
5	.27	.11	.40	.16	.08	.27
73	.27	.05	-.04	.71	.10	.58
70	.24	.12	.06	.62	.24	.52
71	.08	.15	.15	.59	-.04	.40
45	.21	.12	.18	.49	.16	.36
46	.08	.10	.21	.44	.26	.33
80	.17	.27	.15	.41	.06	.29
49	.17	.12	.11	.03	.60	.41
50	.31	.09	.04	.13	.59	.47
48	-.02	.15	.24	.10	.55	.39
47	.12	-.07	.29	.22	.42	.33
고유값	17.04	2.20	1.79	1.60	1.41	
설명변량	53.3	6.9	5.6	5.0	4.4	
총설명 변량			75.2			

요인 1은 전체변량의 53.3%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11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11개의 문항은 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의 6.9%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7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7개의 문항은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5.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9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9개의 문항은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의 5.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6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6개의 문항은 자녀의 지적 학습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습지도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전체변량의 4.4%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4개의 문항은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훈육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여 총점과 하위요인별 총점과의 상관계수로 나타내는 요인타당도 검증은 한 결과 요인타당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 4> 요인타당도

하위요인	요인 타당도
요인 1	.86
요인 2	.80
요인 3	.79
요인 4	.75
요인 5	.65

본 연구에서 제작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

erman(1978)의 척도를 사용한 신숙재(1997)의 부모효능감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5>과 같다. 신숙재(1997)가 사용한 척도는 하위요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 전체와는 .71, 하위요인과는 .51에서 .70사이의 상관을 보였다.

<표 5> 양육효능감 척도와 외적 기준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본연구에서 개발된 척도					
	척도 전체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신숙재(1997)의 척도	.71***	.70***	.57***	.60***	.60***	.51***

** p<.0001

3.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반영해 주는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내적합치도의 경우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alpha=.92$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분신뢰도의 경우도 요인별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계수	반분신뢰도
요인 1	11	.86	.84
요인 2	7	.75	.74
요인 3	9	.80	.78
요인 4	6	.76	.75
요인 5	4	.75	.7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육효능감연구는 대부분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하여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척도는 하위 영역 중 하나를 이용하여 양육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다. 또한 원래 이들의 도구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인데, 국내에서 이들의 도구전체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에 따라 이론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절차없이 9문항, 10문항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여 온 경향이 있었다. 국외에서 진행된 양육효능감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척도를 사용할 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하위 영역을 가진 도구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 문화적 산물임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제대로 측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하고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는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를 제작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을 연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친 안면타당도를 구하였으며,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94문항으로 구성된 1차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1차로 작성된 질문지는 어머니 17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질문지와 함께 기존

의 척도들이 포함하지 못한 측면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되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양육효능감 요인의 파악 및 문항의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면접을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문항과 해당 아동 양육에 대한 부적절성이나 문항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문항들을 첨삭·수정하여, 총 83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2차로 작성된 83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여 473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결과 37문항으로 최종 제작된 질문지가 구성되었으며 아동학 전공자들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16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공인타당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83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 문항변별도, χ^2 검증, 그리고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63개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6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체 변량의 75.2%를 설명하는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가운데 해당요인과의 요인부하량이 .40이하를 나타내거나, 타요인과 .35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37문항을 선정하였다. 5개의 요인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개발된 본 연구의 척도는 신숙재(1997)가 사용한 양육효능감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공인타당도에서 유의하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인타당도도 높게 나타나 요인타당도의 측면에서도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alpha=.92$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도 .75-.86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분신뢰도를 구한 결과 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71-.84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의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요인-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은 Allen(1993)에 의해 개발된 양육효능감의 요인-애정(Love), 통제(Control), 의사소통(Communication), 교육(Education), 전반적인 양육효능감(General efficacy)-과 유사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llen(1993)의 측정도구에 나타난 요인들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들과 요인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 지도 능력, 훈육 능력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Allen(1993)의 연구는 요인이 애정,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인 양육능력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두 척도간에 요인순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llen(1993)

의 측정도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과, '의사소통'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능력'과, '교육'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학습지도 능력'과, '통제'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훈육 능력'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Allen(1993)의 측정도구에서 있었던 '애정'요인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Allen(1993)의 측정도구에 없었던 자녀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 능력보다는 동양철학을 이끌었던 사람중 한 사람인 공자가 '부모란 오로지 자식의 건강을 염려할 따름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부모가 해야할 일 중 자녀의 건강에 대한 배려를 으뜸으로 생각하였던 동양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표집이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서 어머니를 표집하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점은 있으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을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더구나 한국의 문화적 성격이 반영되고, 이제까지 국내에서 사용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척도와 달리 하위영역을 갖는 척도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됨으로써 양육효능감의 측정에 좀 더 정교함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 아니라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타당성 있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 서혜영(1999). 남성의 일-아버지의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86).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llen,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llenski, C. B., & Cook, A. S.(1982).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e in managing selected parenting tasks. *Family Relations*, 31, 489-494.
- Bandura(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ornstein, M. H., Haynes, O.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Painter, K., Pascual, L., Po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 (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4.
-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ger, J. J.(1984). *Adolescence and Youth :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3rd ed.). New York : Harper & Row.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 chology*. 33(5), 861-868.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97-175.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Sabateli, R. M., & Waldron, R. J.(1995). Measuring issues in the experiences of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15-28.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부록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문항 내용

요인명명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전반적인 양육 능력 : 11문항	16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7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9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23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83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33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21	나는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17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26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10	나는 부모로서 해야할 일을 잘 하고 있다
	36	나는 아이를 일관성있게 훈육할 수 있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 7항	57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55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59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53	나는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58	나는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61	나는 아이가 방과후 좋은 활동(음악, 운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52	나는 아이에게 운동경기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 9문항	11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7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41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24	나는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18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9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기울이게 할 수 있다
	64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38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학습 지도 능력 : 6문항	73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70	나는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71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45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46	나는 아이의 방과후 일과를 관리할 수 있다
	80	나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훈육 능력 : 4문항	49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50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48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47	나는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총 37문항	5개 요인	